

2011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시행결과

I. 개 요

1.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정종섭)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김성열)은 2011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 LEET)을 지난 2010년 8월 22일(일)에 서울, 수원,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춘천, 제주 등 9개 지구 13개교에서 실시하였다.

2. 응시자는 전체 지원인원 8,518명 중 89.52%인 7,625명이 응시하였으며, 지구별로는 서울 5,843명, 수원 325명, 부산 432명, 대구 345명, 광주 191명, 전주 152명, 대전 261명, 춘천 47명, 제주 29명이다. 결시자는 응시료 환불자 535명을 포함하여 893명이다. 수험생 중 시각장애인(약시)과 지체장애인이 포함된 특별관리대상자는 18명이었으며, 별도로 제작된 확대 문제지와 논술답안 작성을 위한 컴퓨터 등이 제공되었다.

II. 일반 개황

1. 시험 시간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시험은 1교시 언어이해 영역(09:00~10:20), 2교시 추리논증 영역(11:00~12:50), 3교시 논술 영역(14:00~16:00)의 순서로 실시되었다.

2. 문제 및 정답 이의 신청 및 심사

문제 및 정답 이의 신청 관련 일정은 다음과 같다.

- 이의 신청 접수 : 2010. 8. 22(일) 17시 ~ 2010. 8. 25(수) 17시
- 응시생에 한하여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가능

◦ 이의 처리 기간 : 2010. 8. 26(목) ~ 2010. 9. 8(수)

◦ 최종 정답 발표 : 2010. 9. 9(목) 10시

3. 채점 및 성적 통지

언어이해 영역과 추리논증 영역의 채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전산 처리하며, 성적은 9월 29일(수)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www.leet.or.kr)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성적표에는 영역별 표준점수와 표준점수에 해당하는 백분위가 표기된다. 논술 영역의 경우 추후 수험생이 지원하는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채점하므로 성적 발표 시 표기되지 않는다.

III. 출제의 기본방향

1. 법학적성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수학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대학 교양 과목 수준의 보편적인 개념과 소재를 활용하여 출제하도록 한다.
2. 가능한 한 다양한 학문 영역이 관련된 소재를 활용하여 통합적으로 출제하도록 한다.
3. 기억력에 의존하는 평가를 지양하고 분석력, 추리력, 종합력 등 고차원적 사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하도록 한다.
4. 특정한 전공 영역에 유리한 문항을 배제하여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IV. 영역별 출제 방향

□ 1교시: 언어이해 영역

1. 출제의 기본 방향

언어이해 영역은 법률가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언어 소양과 법학전문대학원 수학에 필요한 통합적 언어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수학하는 사람이라면 대학에서의 전공과 상관없이 공적 가치 판단이 요구되는 다양한 전문 분야의 글들을 독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구체적인 출제 원칙은 다음과 같다.

◦ 통합적이며 심층적인 독해 및 사고 능력을 평가한다.

◦ 국어, 인문, 사회, 과학·기술, 문학·예술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내용 및 표현 면에서 모범이 될 수 있는 지문을 선정·개발한다.

◦ 지문의 핵심 정보나 주요 세부 정보들을 파악하고, 정보들 간의 유기적 관련성을 분석·종합하며, 주어진 단서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제 상황들에 대응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한다.

◦ 기본 독해 능력에 대해서는 동일한 유형의 문항을 활용하되, 평가 내용에 따라 참신한 문항을 개발하여 문항 유형이 고착되지 않도록 한다.

◦ 그래프, 악보, 통계 자료 등을 활용함으로써 복합적인 정보 해석 능력을 측정한다.

2. 출제 범위

언어이해 영역은 높은 수준의 독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영역이다. 이 능력은 다양한 상황에서 폭넓은 유형 및 주제의 글을 접하게 되었을 때 이를 정확히 읽어 낼 뿐 아니라 글이 담고 있는 의미의 함축과 가치를 비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언어이해 영역에서는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지문의 소재를 구하되, 중요한 공적 가치를 지닌 주제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고, 언어이해 영역의 여러 평가 목표를 균형 있게 다룰 수 있도록 지문의 성격을 다양화하였다.

이번 시험에서 지문 선정 시 고려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교양 교육의 충실한 이수를 유도하기 위하여 여러 학문 분야에 두루 사용되는 기본적인 개념이나 범주들을 중심으로 지문을 선정하였다.

둘째, 각 학문 분야의 최신 이론이나 시의성 있는 문제 상황을 반영하는 주제로 각 지문들을 구체화함으로써 평가에 사용된 개념이나 범주들이 일반 지식 차원으로 환원되지 않게 하였다.

셋째, 학제적 내용 분야와 각 주제들을 연계시킴으로써 통합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할 수 있게 하였다.

넷째, 최근의 학문 동향을 반영하여 지문 독해만으로도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하였다.

다섯째, 다양한 내용 분야들이 법적 문제들과 연관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지문을 선정함으로써 법의 이론적·현실적 연관성을 폭넓게 사고하게 하였다.

3. 지문 및 문항

언어이해 영역에서는 국어, 인문, 사회, 과학·기술, 문학·예술 등 5개 분야에 서 총 35문항을 출제하였다. 이 중 '국어' 분야를 제외한 4개 분야는 지문을 기반

으로 문항을 출제하였다. 지문을 활용하는 문항 세트는 지문 특성에 따라 종합적인 독해 능력을 평가하거나 특정한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도록 설계하였다.

‘국어’ 분야에서는 법학 계열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면서도 그 뜻을 곧잘 혼동하여 사용하는 고급 한자어들의 어휘 관계와 용법을 묻는 문항들과 문장 구조의 혼란을 야기하는 어법적 문제들을 다룬 문항을 개발하였다.

‘인문’ 분야에서는 사학과 철학 지문을 다루었다. 사학 지문에서는 잡직(雜職)의 지위에 대한 평가 문제를 다룬 ‘조선 왕조 실록’ 중 일부를 발췌하여, 지문으로부터 역사적 상황을 재구해 내게 하는 문항 등을 개발하였고, 사료에 반영된 인식과 가치관을 분별해 내는 능력을 측정하기도 했다. 철학 지문에서는 이성중심주의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독일 관념론의 전통 속에서 살피게 함으로써 논지의 흐름과 핵심 개념의 분석적 이해 수준을 평가하였다.

‘사회’ 분야에서는 정치학, 경제학, 경제지리학, 법제사학, 법철학 지문을 다루었다. 정치학 지문에서는 프랑스 제3공화국에서의 대의제 개념의 발달 과정에서 어떻게 복지 국가의 개념이 형성되며, 노동자 정당이 체제 내에 포섭되었는지를 다루면서 이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정치적 대안을 추론하게 하였다. 경제학 지문에서는 법적으로 강제하기 어렵고 경제적 위험도 효과적이지 않은 국가 채무가 자발적으로 상환되는 까닭에 대한 가설들을 다루면서 가설의 타당성에 관해 판단해 보도록 하였다. 경제지리학 지문에서는 혁신 주도형 지역 발전 모델의 주요 개념들을 ‘네트워크’와 관련지어 살펴보면서 각 개념들을 분별하고 실제 사례에 적용해 보도록 하였다. 법제사학 지문에서는 13~16세기의 ‘동물 재판’에 관한 논의를 통해 재판이 지닌 기능과 문화적 의미를 평가하고 지문의 내용을 현대의 동물 권리 문제와 관련지어 판단하게 하였다. 법철학 지문에서는 20세기 초 법철학자 호겔드의 권리 분석 논의를 소개하여 그가 제시한 권리의 문법을 이해하고 권리에 대한 근본 개념들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해 보도록 하였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과학철학과 지구과학 지문을 다루었다. 과학철학 지문에서는 고전 물리학과 특수 상대성 이론, 고전 물리학과 양자역학의 관계를 살펴 보면서 과학의 진보를 평가하는 근거를 생각해 보게 하였다. 지구과학 지문에서는 원격 탐사에 사용되는 에너지와 물체의 상호작용에 관한 내용을 살펴 보면서 과학적 탐구 방법의 원리를 창의적으로 적용해 보도록 하였다.

‘문학·예술’ 분야에서는 문학과 예술 지문을 다루었다. 문학 지문에서는 루쉰의 「비공(非攻)」을 선정하여 인물의 성격과 태도 및 작가의 주제의식에 대해 판단하도록 하였다. 예술 지문에서는 음악의 발전 과정을 다루면서 선법 음악과 조성

음악의 기본 개념 및 개념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변화의 성격과 추이를 파악하도록 하였다.

4. 난이도

2011학년도 법학적성시험에서는 지문과 문항의 난이도를 2010학년도와 비슷하게 유지하였다. 전체 지문에서 익숙한 내용과 낯선 내용이 고루 갖추어지게 하였고, 정보량이 많은 지문과 비교적 평이한 지문을 함께 고려하여 다양한 성격의 지문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낯설거나 정보량이 많은 지문이라 하더라도 특정 전공의 배경 지식이 유리한 변인이 되지 않도록 조정하였다.

5. 문항 출제 시의 유의점 및 강조점

- 언어이해 영역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능력이 주로 통합적 이해력과 심층 분석력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문 분량에 융통성을 두었다. 다소 어려운 지문의 경우 분석적 이해를 주로 평가할 때에는 지문 분량을 늘리고, 추론 능력을 주로 평가할 때에는 지문 분량을 줄였다. 비교적 쉬운 지문의 경우에는 지문의 분량을 늘렸다.

- 선지식에 의해 풀게 되거나 전공에 따른 유불리가 분명해지는 지문의 선택과 문항의 출제를 지양하였다.

- 출제의 의도를 감추거나 오해하게 하는 문항의 선택을 피하고, 평가하고자 하는 능력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간명한 형식을 취하였다.

- 문항 및 답지 간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답지 선택에서 능력에 따른 변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 2교시 : 추리논증 영역

1. 출제의 기본 방향

추리논증 영역은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소재를 찾아 추리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데 출제의 기본 방향을 두었다. 또한 특정 전공자가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전문 지식이 문항 해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를 위해서 가능한 한 수험생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제재의 글을, 대학에서 정상적인 학업과 평소의 독서를 통하여 사고력을 함양한 사람이라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글을 단순히 이해함으로써 문항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글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등의 사고력을 통해

서 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고력 측정 시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구체적인 출제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수험생들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을 공부하게 될 사람들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법 관련의 다양한 제재를 사용한 문항을 다수 포함시키되, 법학 전공자가 유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학의 선지식이 문항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도록 하고,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수험생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텍스트를 재구성한다.

- 전공에 따른 선지식의 유무에 따라 문제 해결에 드는 시간과 노력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자연과학 소재와 철학 고전 소재 문항의 가독성을 높인다.

- 수리추리의 경우 단순한 계산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이 되지 않도록 계산에 드는 시간은 최소화하고 주어진 정보로부터 문제 해결의 열쇠를 찾아내는 사고력을 평가하는 문제가 되도록 한다.

2. 출제 범위

추리논증 영역의 출제 범위에는 인문학, 사회과학, 과학·기술 등 모든 이론적 학문 분야뿐만 아니라, 일상적·도덕적 논변, 정책 및 의사결정 상황, 법적 논변 등의 실천적인 분야까지 포함시켰다. 이번 추리논증 영역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목적을 고려하여 법 관련 제재를 다수 포함시켰다.

특히 헌법 정신에 비추어 법률의 위헌성 여부를 다루는 논증에 대한 평가 문항(1, 2번)과 법 정신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한 추리 문항(4번)처럼 법 이론을 제재로 삼기도 했고, 국제 통상, 법조윤리, 행정처분 등과 같은 실천적인 법적 논변을 제재로 삼기도 했다. 또한 국제 정치(10번), 국제 경제, 범죄 심리(24~27번) 등을 사회과학의 제재로 삼음으로써 법 친화적인 내용을 다수 포함시켰다.

3. 문항

문제 해결에서 추리력이 관건이 되는 추리 문항과 제시된 논증이나 논증적 자료를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평가하는 논증 문항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다.

추리력을 묻는 문항들은 일상어를 도구로 삼아 추리하는 언어추리 문항, 복잡한 계산을 요구하지 않는 수준에서 수리적 사고를 통하여 해결 가능한 수리추리 문항, 그리고 인문, 사회, 과학·기술 분야의 개념, 가설, 이론, 실험 등의 소재를 가공하여 특정한 상황에서의 복합적인 추리를 요구하는 논리게임 문항들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특히, 언어추리 문항에는 작년부터 유형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

는 법적 추리(legal reasoning) 문항들을 주요 부분으로 포함시켰다.

논증력을 묻는 문항들은 주어진 논변들을 분석하여 주장과 논거를 찾아내고 그 논리적 관계를 분석하는 문항, 주어진 논변에 대하여 비판하고 평가하는 문항, 발생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시된 가설의 설득력을 평가하는 문항 등 다양한 인지 활동을 골고루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4. 난이도

2011학년도 법학적성시험에서는 문항의 난이도를 2010학년도와 비슷하게 유지하였다. 추리논증 영역에서는 대학 교육을 통해 함양할 수 있는 능력으로 문항 해결이 가능하도록 지나치게 복잡한 고난도의 문제를 피하였다. 대학의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특화된 전문적 식견보다는 정상적인 대학 교육으로 길러질 수 있는 일반적인 지적 능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항들을 출제하였다. 특히 단기간에 습득된 요령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대학에서의 학업과 독서를 통하여 얻은 논리적 사고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하였다.

5. 문항 출제 시의 유의점 및 강조점

- 특정 학문 분야의 지식에 의존하기보다는 논리적인 사고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항들을 출제하였다.

- 수리추리와 논리게임 유형의 문항에서는 자료를 해석하고 정보를 정리하여 문제 해결의 핵심 요소를 찾아내는 능력을 측정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문항의 진술을 이해하면 해결 방법을 찾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다.

□ 3교시 : 논술 영역

1. 출제의 기본 방향

논술 영역에서는 미래의 법률가가 갖추어야 할 분석적, 비판적, 종합적 사고력과 논리적이면서도 창의적인 글쓰기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법률가에게는 합리적 판단을 위한 법적 추론의 능력과 그것을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논술 영역에서는 이런 점들을 검증하기 위해 인문·사회 분야의 텍스트를 제시하여 지문이나 사례에 대한 해석 능력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한된 시간과 지면 안에 자신의 구상대로 언어화하는 능력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2. 출제 범위

법학적성 평가를 위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인문·사회 분야의 제시문을 선별하되,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독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되도록 하였다.

3. 문항

2011학년도 법학적성시험 논술 영역은 두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1번 문항은 ‘논증 분석·추론’ 유형으로서, 주로 분석적 사고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수험생들은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매개가 되는 정치적 사이-공간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 핵심 개념을 활용하여 정치적 직접 행동의 불가피성에 대한 주장을 평가해야 한다. 2번 문항은 ‘적용·발전’ 유형으로서, 일반적으로 법적 추론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이성’이 인간의 ‘감정’과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제시문은 법적 판결에 있어서 감정의 중요성을 역설한 지문, 감정의 배제를 역설한 지문, 그리고 이성에 의해 제어 받는 감정의 순기능을 역설한 지문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이 세 지문 외에 구체적인 법적 판결의 사례를 <보기>로 제시하였다. 수험생들은 세 제시문의 논지를 적절히 활용하여 <보기>의 판결의 정당성이나 부당성에 대하여 논술해야 한다. 수험생들의 독창적인 답안을 유도하기 위하여 세 제시문은 모두 찬성과 반대가 가능한 양가적인 지문으로 선택하였으며, 세 제시문의 논리적 근거를 종합하여 <보기>의 판결을 심도 있게 해석할 수 있도록 개방적으로 문항을 설계하였다.

4. 난이도

2011학년도 법학적성시험에서는 2010학년도와 비슷하게 난이도를 유지하였다. 법학에 대한 선지식이 답안 작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응시자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변별력을 가지도록 문항을 출제하였다.

5. 문항 출제 시의 유의점 및 강조점

- 문제 유형과 답안 분량을 고려하여 1, 2번 문항의 배점을 각각 40점, 60점으로 차등 배분하였다.
- 해석상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두와 조건을 명확하게 표현하였다.
- 제시문은 원문이 외국어로 되어 있는 경우 직접 번역하였고, 출제 의도를 좀 더 잘 구현하고 가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절히 운문·재구성하였다.